SRF 악취 또 기준치 초과…커져가는 광주시 책임론

보건환경연 측정…양과동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 500 넘어선 669
부지경계선·인근 아파트도 초과…3년간 민원 180건인데 조치 미적
남구,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속 주민들 "이제야 뒤늦은 대응" 지적

광주시가 양과동 가연성고형연료화시설(SRF)에 대한 2차 악취 측정치가 또다시 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때마다 기준치 넘어…광주시 고의적 검사 기피 의혹=12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7~8일 실시한 SRF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측정 결과, 배출구 복합악취 희석 배수가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준(500)을 넘어선 669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 의뢰를 받아 SRF 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 수치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넘어선 수치가 검출된 바 있다.

올 들어 실시한 두 차례의 측정치 모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이번 측정에서는 부지 경계선 두 곳과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기준치(15)를 넘어선 수치(30)가 각각 측정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주시가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꺼려 주민들 민원에도 악취 측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년 동안 거의 하지 않다가 올 들어 지난 6월 12~13일, 8월 7, 8일 측정했는데, 모두 허용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SRF시설을 둘러싼 민원은 무려 3년 넘게 지속됐다. 3년 간 제기된 민원도 180건에 이른다. 반면, 악취 측정은 손에 꼽을 정도다. 2023년에 3건 뿐이고 2024년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측정을 피하다 주민 민원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의뢰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 SRF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간담회를 갖고 "해당 시설이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남구는 시설개선 권고에 그쳤다"면서 "SRF 시설은 명백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인 만큼 관리 부실·허가조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가동중단·조업정지·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남구,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 추진"=광주시 남구는 측정 결과를 감안, 악취방지법(8조)상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도 악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법정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악취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12~13일(1회), 8월 7일(2회), 8월 8일(3회) 등의 측정치가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광주SRF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최근 3년간 180건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남구는 또 악취방지법(6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또 광주시와 복합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설비 설치 전까지 SRF 시설 가동을 멈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껏 수백 건의 민원 제기에도 광주시에 떠넘기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남구의 뒷북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시설 노후화와 24시간 가동, 반입량 증가 등이 악취 악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악취 외에 유해물질·환경호르몬 등 정밀 조사도 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감사관 채용 비위' 광주교육청 사무관 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해왔고,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2·3위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평가위원 2명은 A씨의 요구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높게 수정, 최종 순위도 바뀌었다.

A씨는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특정 후보자와 교육감 간 고교 동창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접 점수가 높게 수정돼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바뀌어 최종 합격한 후보자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인물은 임기를 약 7개월만 채우고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관 채용 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도 이와관련, "이 교육감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교육감직 사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폭염 취약시설 지원할 실외 에어컨 12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폭염시 야외물놀이장 등 취약시설에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의료진들이 사용하던 실외 에어컨 작동 확인을 위해 이동 시키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오토바이 굉음에 잠 못 드는 밤" 민원…북구, 실태 파악 나서

광천터미널~운암사거리 구간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서 북구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밤 늦은 시간 광천종합버스터미널~운암사거리 간을 오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장 조사를 거쳐 단속 계획을 수립중이다.

자신을 운암사거리 인근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0일 구청 홈페이지에 "밤 10시부터 새벽시간대 오토바이 굉음으로 귀청이 떨어질 것 같다"며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북구는 경찰과 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협조해 합동 조사를 하는 기본 매뉴얼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에서는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소음기를 떼고 달리거나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기 훼손 여부나 불법 개조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는 상반기 중앙·두암·우산동 일대에서 7건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진행했었다. 지난해에도 광주역 등 중흥동 일대에서 6건을 단속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내 차에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

주차구역 외 주차로 스티커 붙자 협박성 메모…아파트 입주민 입건

정해진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에 '협박성 메모'를 붙인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주차 위반 문제로 주민에게 현저하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자를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서부경찰은 12일 협박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U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면 외의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유리창 위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메모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공개됐다.

올린 이는 "지상주차 허용시간(오후 10시~오전 8시) 외에 위반 스티커가 붙자 화가 난 듯 이런 무식한 메모를 써붙였다"며 "아파트 단지 대화방에서도 무섭다고 아우성"이라고 썼다.

서부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 현장 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처음엔 부인하다 CCTV와 현장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 면 외에 주차하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적발돼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배부하는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메모지만, A씨가 직접 관리실에 찾아가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박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아파트를 가든 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자신만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